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비몽사몽의 한동안

명아주 고비 비를 따위의 풀들이 말라 있는 가운데 백문동(白文洞) 두어 포기 가 자주색 꽃 뒤의 자갈한 열매를 달고 있었다.

남산 기슭 북쪽아 바에는 정작 북쪽아 나무는 진물이 엉겨붙은 가지를 달고 병들어 죽은 것이 적지 않았다.

누가 빨갛으로도 배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백성이 도처에서 파팍 쓰러지는 관이 나 그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던 북쪽아 나무인들 제가 무슨 무릉도원(武陵桃源)의 북쪽이나무라고 선경(仙境)의 삼을 과시하겠는가.

바로 이같은 간난(艱難) 가운데 내버려진 술장 대접에서 깨어난 인담은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시간이 흘러 그 의식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 그 북쪽아 밭의 마른 풀더미 구멍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올 정도로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를 아찔한 상태로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늘을 향해서 누운 자세이지만, 그렇다고 하늘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 흐리멍덩한 시계(時界)에 눈의 초점이 모아지지도 않았다. 그런지라 그가 돌아갈 무욕도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때였다. 인담의 눈에 번쩍 빛나는 것이 있다가 사라졌다. 눈이 약간 아픈 것도 같았다.

그 뒤로 그의 눈에는 흐리멍덩한 허공 대신 그 허공에 그려지는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하고 짧은 탄식이 나왔다.

그런데, 그 탄식에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새로 그려진 세계의 한 구석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방금 무욕을 마치고 난 뒤처럼 몸속의 피가 잘 순환되고 있었고 얼굴은 더할나위 없이 평화로웠다.

아버지가 말하였다. "나는 바로 앞(直前)의 전생에는 파수원의 원정(園丁)이었다."

어린 아들의 눈이 더욱 초롱초롱하였다. 마치 지난 밤의 별 몇개가 그 아들의 눈안에 숨어들었으나 그 별빛을 숨기지 못하고 빛내는 것처럼.

"그럼 전생의 나는 무엇이었지요?"

아버지가 서슴치 않고 말하였다.

"그야 내 파수원의 주인이었단다."

"그래? 그런 어머니는?"

"나를 그 파수원으로 데려온 늙은 원정이었다."

"그럼 우리는 전생에도 다 사람이었던 말이요? 크거나 무소 그리고 영영거리는 모기가 아니고?"

"그야, 사람이었던다. 나무 열매들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파수원의 모든 열매들의 냄새와 우리들의 냄새가 똑같아서 새들이 우리를 보고도 마치 파수원의 열매들 앞에서 잔뜩 놀라거나 달아나지 않았단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더이상 아버지에게 묻는 일이 없어졌다. 그대신 이번에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하였다.

"집에 가서 비양나무의 열매 한 개를 가져오너라"

아들이 큰 열매를 가져왔다.

"여기 있어요"

"그걸 깨뜨려보아라"

"네... 깨뜨렸어요. 아버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요. 아버지"

"그 씨앗을 깨보아라"

"깨어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말하였다.

"내 아들이야, 씨앗 속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수(精髓)로부터 이렇게 큰 비양나무가 생겨난 것란다. 너는 아버지의 말을 믿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정수가 전우주(全宇宙)의 정신이란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실재(實在)이고 그것

노인의 표정이 차츰 굳어졌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당장 거덜이 날 정도의 넓은 책장을 행여나 미풍에라도 찢어지지 않을까, 마른 풀끝에라도 찢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넘겨보는 것이었다. "흐음! 꽤는 오랫동안 잠자다가 나온 것이로다. 서하 임춘이라 참으로 멋진 운명이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시를 세상에 퍼뜨려 이 썩어빠진 한양성안에 새 세상의 봄바람이 일도록 하겠소이다"



수미산

이야말로 아르만(자아)이란다. 바로 네가 그것이다."

이 말을 마친 아버지는 아주 딱한 일이라도 마친듯한 표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의 허공에 그려진 수미산의 세계

비라는 천일기도를 하고 난 늙은 나그네라오. 이제 한양성을 떠나려고 이 북쪽아밭을 에돌아가는 길을 내려오는 참에 당신을 만난 것이요. 당신은 왜 삭발을 했오? 혹시 서린옥(瑞麟玉)의 죄수가 아니오?"

"죄수라면 죄수입니다만"

"왜 그러시오?"

"네 제가 지닌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저것 말이오? 소의 등에 타고서 소를 찾아가는 격이로군"

노인이 빙긋이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인담이 그의 뒤를 돌아다보니 구렁의 줄더미 가운데 다른 쓰레기와 짐승 배 그리고 너털너털 육탈(肉脫)된 사람의 뼈 따위가 어우러져있는 곳에 그가 매고 온 것이 있었던 것이다.

봉긋방 주인이 이 행색이 초라한 자가 죽은 목숨이라고 여겼을 때 그 목숨이 지닌 집이나 산발 따위도 꽤! 꽤! 힘을 뺏아 함께 이곳 구렁에 내버린 터였다.

인담은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기뻐다. 이제 가슴의 통증은 없어졌다.

그는 대를 노인에게 간청하였다.

"노인장께서는 결코 범인(凡人)이 아닙니다. 필시 이인(異人)이십니다. 저는 노인장께서 짐작하시는데로 충청도 바닷가에 떠다니는 한갓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새벽 꿈이 인도한대로 이 문집이 숨겨진 데를 꿈속 그대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예 노인에게 대충 그동안의 사연을 말한 뒤 그의 집을 풀어 문집 세 질을 내놓았다.

노인의 표정이 차츰 굳어졌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당장 거덜이 날 정도의 넓은 책장을 행여나 미풍에라도 찢어지지 않을까, 마른 풀끝에라도 찢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넘겨보는 것이었다.

실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 이상으로 받드는 태도가 여신했다. 멀리 만리재 넘어 희롱해진 흐린 날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흐음! 꽤는 오랫동안 잠자다가 나온 것이로다. 서하 임춘이라 참으로 멋진 운명이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시를 세상에 퍼뜨려 이 썩어빠진 한양성안에 새 세상의 봄바람이 일도록 하겠소이다! 하기가 그동안의 수백년 풍운에 이



그림 · 최규일

“서하의 시가 햇빛을 쏘일 때를 좀더 기다리시오”

가 저 하늘 끄트머리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가득찬 채 몇타라의 구름이 가로로 장막(帳幕)처럼 가리워져 있었다. 꿈인지 생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인담의 몽롱한 의식이 제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세계는 지워졌다.

인담은 그의 벌벌 누워있는 상태의 몸에 통증이 일어났다. "아"하고 짧은 탄식을 내뿜었다.

통증은 가슴 부위에 있었다. 두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며 그가 가까스로 일어났을 때 그의 옆에 한 노인이 있었다.

"살아났군"

"..."

"나는 목역산 검은 우물 뒤에서 이 더러운 한양 성안이 정화(淨化)되기를

"그런데, 산중에도 섬에도 각각 죄수 아닌 사람이 없을 터인데"

그 노인은 입담이 숨겨 신분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처지이면서 말을 엉뚱하게 꺼내어 본 것이었다.

"화상(和尚)은 천축국(天竺國)의 옛 이치가 적힌 오의서(奧義書-우파니샤드)의 한 대목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고 내 막대기로 가슴팍을 한대 얻어맞고 살아 나서 이렇게 나와 말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된 것이요"

"아"

"아! 그 아란 이 우주의 햇소리인 것이요"

그때 인담은 그가 소중히 간직해 온 <서하문집>과 <수미행>을 떠올리고 나서 무척 당황하였다.

렇게 세상 모르게 숨겨져 있는 보물이 아찌 하나둘이라"

인담도 감회가 새롭기 시작했다.

"노인장의 한자(漢字)라도 알고저 합니다만"

"나 말이오? 내이름 또 한 아직 세상에 알릴 수 없이 좀더 숨어 있어야 할 운명이나 너무 서둘러 알려고 하지 마오. 앞으로 다른 산으로 들어가 천일기도를 풀인 뒤에나 나올 것인즉"

"앞으로 서하선생에 관한 일로 찾을 일이 있다면 어떻게 찾지요?"

"마을마다 거리마다 굶주려 죽은 사체가 산더미처럼 이루고 있는 날이 벌써 몇 해동안이나 이어지고 조정은 당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오. 서하의 시가 햇빛을 쏘일 때는 좀더 기다리시오."

에서 한 사람의 손으로 건너가는데 도무지 세상은 그의 시에 관한 기구한 일을 아는 이 하나 없었다. 남산에서 소쩍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니 벌써 어둑함이 사방을 채우기 시작하는 때였다.

"화상은 이 길을 남으로 가오. 이 늙은 나그네는 북으로 가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럼."

"그럼. 난세는 산중의 도인도 큰 시련을 당하는 법이오. 벌써 용화회상(龍華會上)을 말하다 처형당한 화상도 있으니... 입을 조심하시구려"

"네"

그들의 작별은 간단하였다. 그 길로 인담은 한강을 건너는 나룻배에 탔다. 강물은 어둠 속에서 햇빛을 건드리며 사 람과는 달리 무정(無情)하였다.

"살법(殺法) 중에는 무정살법(無情殺法)이 으뜸이지 않 으뜸이지!"

노들나무에서 하룻밤을 묶는 사이 다시 웃을 갈아 입은 인담은 중으로 돌아 갔다. 충청도는 비바람은 날의 먼지 밖으로 밀고 밀었다.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세트 1, 세트 2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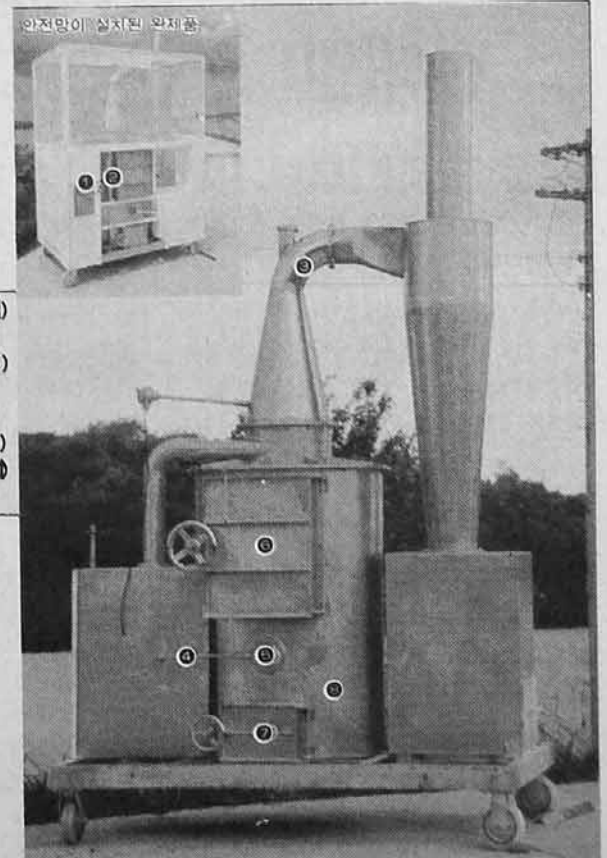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배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세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세트 기류가 형성 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 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불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별명특허출원 94-8644 외장특허출원 94-8470, 8471, 8472



- ① 소화기(비연식)
- ② 공기흡입 밸브
- ③ 안전밸브(가스 방출구)
- ④ 냉각파이프
- ⑤ 냉각물 온 집통
- ⑥ 투입구(소각물)
- ⑦ 배출구(잔여재)
- ⑧ 소각로 내부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전화: (0344) 64-7236, 62-3488
팩스: (0344) 62-7012